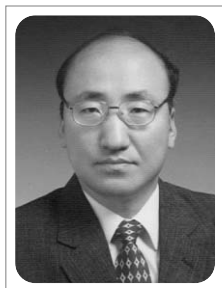


특 집 | 사서들이 꿈꾸는 도서관

서울에 대형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자



김지봉*

2004년 5월에 미국의 시애틀시에서는 1억7천만 달러가 투자된 초대형도서관이 개관되었다. 시애틀시에 기반을 둔 MS사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건축기금으로 2,000만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진 이 첨단도서관은 이른바 모든 사람을 위한 도서관(Library for all)이라는 목표로 첨단 IT와 전통적인 도서관을 접목한 미래형도서관(New Library)이다. 그 해 10월에는 오사카 바로 옆 오카야마(岡山)시에 건축비만 무려 140억엔이 투자된 최첨단 대형공공도서관인 현립도서관이 개관하였다. 2001년도에는 건축비만 6억9천만 홍콩달러가 투자된 10,240평 규모의 홍콩시중앙도서관이 개관하여 운영되고 있다. 사실 외국의 대도시에 가보면 거의 대부분 그 지역의 상징이자 문화수준의 척도로서 대규모 최첨단 공공도서관이 1~2개 정도는 운영되고 있다.

왜 선진국의 주요도시에서는 21세기 첨단 IT시대에도 대형공공도서관을 계속 건립하여 운영하면서 그 지역의 문화상징으로 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자명하다. 세계의 주요도시들이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진입하면서 과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늘어난 시민들의 문화와 학습수요를 도서관에서 일정부분을 담당하게 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책으로 보인다.

*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정보봉사과장, kgb1575@hanmail.net



필자는 평소 서울의 공공도서관에 관심을 가지고 서울의 문화상징으로 서울의 중심공공도서관의 모습을 그려 보곤 했다. 그리고 서울의 공공도서관이 발전되면 우리나라에서 서울이 가지는 영향력으로 보아 다른 지역에도 파급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서울의 열악한 도서관 수준을 바라보면서 항상 주목하고 있었지만 가끔 발전에 관련된 연구보고서나 발간되거나 언론에 열악한 서울 공공도서관 기사보도들만 있어 왔다.

최근 서울시가 서울의 공공도서관 발전방안이나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서울이라는 메트로가 외국의 대도시처럼 정보화, 평생학습사회, 고령화사회, 주5일 근무제도 같은 다양한 변화를 생각하면서 시민이면 누구나 다양하고 전문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서울은 우리나라 600년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이다. 비록 그 면적은 우리나라 국토의 0.6%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GDP의 21%가 서울에서 창출되며, 금융의 50%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서울은 한국의 수도인 동시에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지이며 한국 산업의 집적지로 오늘날 서울은 금융과 물류의 높은 효율성과 첨단 디지털 산업 및 지식 산업의 강한 경쟁력을 갖고 동북아 비즈니스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서울이 가지는 있는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서울시민들이 관련정보나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서울에 중심역할을 하는 대형공공도서관이 최소한 4개 정도는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1개 도서관 당 연면적은 16,500㎡이상, 자료는 100만 규모는 되어야 하고 전문사서들도 충분히 배치되어야 한다. 대부분 자료대출 중심을 지향하고 부차적으로 주민들이 서로 모이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 지역의 소규모 공공도서관처럼 기초적인 학습자료나 레크레이션, 어린이 자료는 물론이고 다양하고 전문적인 자료수집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도서관에는 국내자료 뿐 아니라 외국자료도 다양하게 비치하여야 한다.

외국 체류 경험이 있거나 어학에 능력 있는 사람은 물론 본인이 노력하면 외국 신문이나 잡지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호텔처럼 아늑한 도서

관 공간에서 직접 종이를 만지면서 외국의 주요 신문이나 잡지를 아날로그로 보는 여유는 모든 사람의 바람일 것이다. 외국에 유학 가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에서 주요 외국대학 자료를 직접 보면서 유학설계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양한 비즈니스자료는 사업을 구상하는 시민에게, 다양한 의료정보자료는 건강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에게, 기술자료정보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임도 발생되고 그 다음 지식의 공유로 큰 시너지효과가 기대될 수도 있을 것이다.

평소 사서들이 꿈꾸는 도서관은 아마 자료가 많이 소장되어 있는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보는 이용자들이 북적되는 모습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렇지만 서울의 모든 공공도서관에는 아직도 시험공부를 준비하는 시민들로 복잡하다. 그래도 서울의 공공도서관들도 점차 자료 대출형 도서관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가까운 시기에 자료중심도서관으로 정착될 것이다. 그러면 서울의 4개 대형 공공도서관은 그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한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의 하나로 4개 도서관건축모형은 우리나라 전통의 상징으로 하여 보다 시민들에게 친숙해지도록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든다면 장군총형태, 신라고분형태, 첨성대형태, 황룡사 9층 석탑형태 등으로 하여 도서관을 건축한다. 최근 일부 수도권에 새로 건립된 공공도서관에서 일조량이 적은 유럽스타일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 여름에 무척 더워서 고생한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서울시민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어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장군총하고 너무 닮았네, 저기 한번 가볼까”하고 들어오면 다양하고 많은 자료에 놀라게 되고 호텔 같은 분위기에 반하게 될 것이다. “주말에 이곳에 와서 자료도 찾아보고 휴식을 가져볼까” 하는 생각을 저절로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서울 시민들이 입소문을 듣고 도서관으로 사람들이 몰려온다. “우리지역에도 이런 도서관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시민들이 요구하기 시작하면 서울의 공공도서관이 일본 동경처럼 398개관이 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닐것 같다. (☺)

